

“단품 슬라이딩제 소급 적용해 달라”

〈자재값 급등락시 계약금액 재조정〉

2006년 12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 목포지역 220여개 하도급업체 경영난 호소

정부가 자재값 폭등시 관급 공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이전 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장치가 없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자재값 급등락(15%)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주 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29일

이후, 지방자치체 공사는 지난해 9월20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적용돼 상당수 업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목포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50억 이상 관급 공사 가운데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39건으로 220여개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관급공사를 맡고 있는 모 업체 대표 A씨는 “2005년 당시 포크레인 1대당 월 사용

료가 230만원에서 현재 580만원으로 인상됐고 덩크 사용료 역시 대당 26만에서 37만원으로 올랐다”며 “그러나 하도급 금액을 현실화할 방법이 없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년전 공사 참여 당시 1㎡당 40만원하던 철근가격이 90만원대로 올랐으나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업체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향후 입찰 제재 등 불이익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시기부터 소급해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적용,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진돗개 묘기 상실 공연 인기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 묘기 상실 공연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진도군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5시 3차례에 걸쳐 진돗개 축산사업소 사육장에서 진돗개 묘기 공연을 열고 훈련견과 사진촬영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곳

을 31억 투입...1km² 도로 개설

진도군이 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개 지구에 31억원을 들여 1km²의 도로를 개설한다. 대상 지역은 진도를 쌍정리 오리마당 맞은편~진도주유소, 교동리 삼성사~서외리 주차장, 조금리 오일시장~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도로 등 3개 지구다. 진도군은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과 함께 주민설명회,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9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 주차난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해 진도읍사무소 옆 복개공사도 연내 추진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가계 해수욕장 오늘 개장

진도군 고군면 가계 해수욕장이 2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진도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을 위한 숙박용 텐트 62동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 시설을 완비했다. 한편 이날 가계 해수욕장에서는 비치 발리볼 대회 등 다채로운 개장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1-540-3045)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1천900만원

신안 비금농협-중·고생 선발 교육 지원도

신안 비금농협이 관내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금농협은 지난달 28일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자녀 대학생 19명에게 1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비금농협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65명에게 6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조합원 자녀가운데 중·고등 학생 13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비금 노인회(명륜회)역시 25명에게 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농협 조합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김형석 조합장은 “섬지역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과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초·중·고생 60명 선발 해외영어교육

신안군·신안교육청 글로벌 인재양성 적극 나서

신안군이 매년 60명의 초·중·고생에게 해외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신안군과 신안교육청은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004 SEAP(Study English Abroad Program)’을 운영한다.

교에 진학하는 조건으로 매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현지 가정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 매년 중학생 20명에게 겨울방학 4주간 캐나다 공립학교와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중학교 3학년생 중에서 10명을 선정, 고등학교 1학년 때 10개월간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으로 파견한다. 참가 학생들은 각 학교장이 추천해 신안군교육청에서 최종 선발한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군 단위 자치단체 최초로 사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9월까지 각 읍·면에 1명씩 영어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남약신도시 택시요금 목포시내와 동일 적용

1일부터 남약신도시 지역에서도 목포시와 동일한 택시 요금이 적용된다. 목포시는 1일 “목포시와 남약 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에 적용했던 시외 할증요금이 6월부터 폐지돼 목포시내요금 체계로 단일화됐다”고 밝혔다.

남약 신도시 지역은 목포와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목포와 무안으로 이원화 돼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외 할증요금이 적용돼 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유달산·목포항, 한눈에 보이네

‘옥상정원’ 7월초 개방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과 목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포객터미널 ‘옥상정원’이 오는 7월 초 개방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관리 문제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933㎡ 규모의 옥상정원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목포시와 협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쾌속 유람선의 모습을 닮은 여객터미널 4층 옥상에는 팔손이 나무 202그루를 비롯해 철쭉 등 관목 100여 그루가 심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돼 있다. 전체 면적 1만여㎡로 전국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옥포 터미널은 사업비 39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초 완공됐으며 1천7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4.7.8.9월만 한정)

한 가격은 1인 1만원 7인 7만원 10% 세대가 별도 부가됩니다.

☎예약문의 : (02)228-8000 ☎문의문의 : (02)228-4711-2

재혼반 11년!

결혼 11년째... 11년째... 11년째...
재혼반 11년! 결혼 11년째... 11년째... 11년째...
결혼 11년째... 11년째... 11년째...
결혼 11년째... 11년째... 11년째...
결혼 11년째... 11년째... 11년째...

영특출발 11년째...
문의 : 527-3388

ANYCHE CHAIR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상의 생활-업무용-휴먼에어체
Anyche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상의 생활-업무용-휴먼에어체
Anyche